

광주시 상반기 발주 180억 중 120억 나무사는데 돈 다 썼다

떨정한 가로수 뽑고 새 나무 심기도

올해 2100억의 예산이 부족한 광주 시가 상반기에만 공원·가로숲·도시숲 조성 등 조경 관련 사업에 12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필수경비 조차 부족해 기존 사업 축소·취소, 경상비 및 축제 예산 절감 등 긴축재정에 들어간 광주시가 '외관 꾸미기'에 지나치게 치중했다는 지적이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상반기에 시행된 분청 내 '1억원 이상 공사계약'은 모두 45건에 180억5880만원에 달하며, 이 중 저수지 및 공원 정비가 6건 67억9375만원으로 전체의 37.6%를 차지했다.

또 도시숲·송가꾸기(4건 21억2854만원), 가로숲 조성(6건 12억1133만원), 비탈면 녹화(4건 9억4252만원), 가로수 전지(2건 12억5440만원) 등

조경 관련 사업에만 22건에 123억 3055만원이 쓰여 전체 계약액수의 68.3%를 점유했다.

특히 삼성전자 주변 가로숲 조성 공사(2억950만원), 장신로 가로숲 조성공사(2억1859만원), 회재로 변 소공간 가로숲 조성공사(2억5621만원) 등은 이미 심어진 가로수를 느티나무나 이팝나무로 교체한 것으로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광산 나들목이나 북문교차로 주변을 도시숲으로 조성하는 사업 역시 자연석을 쌓아 소나무나 꽃잔디 등을 심는 것으로, 하반기 예산 부족이 예상된 상태에서 무리한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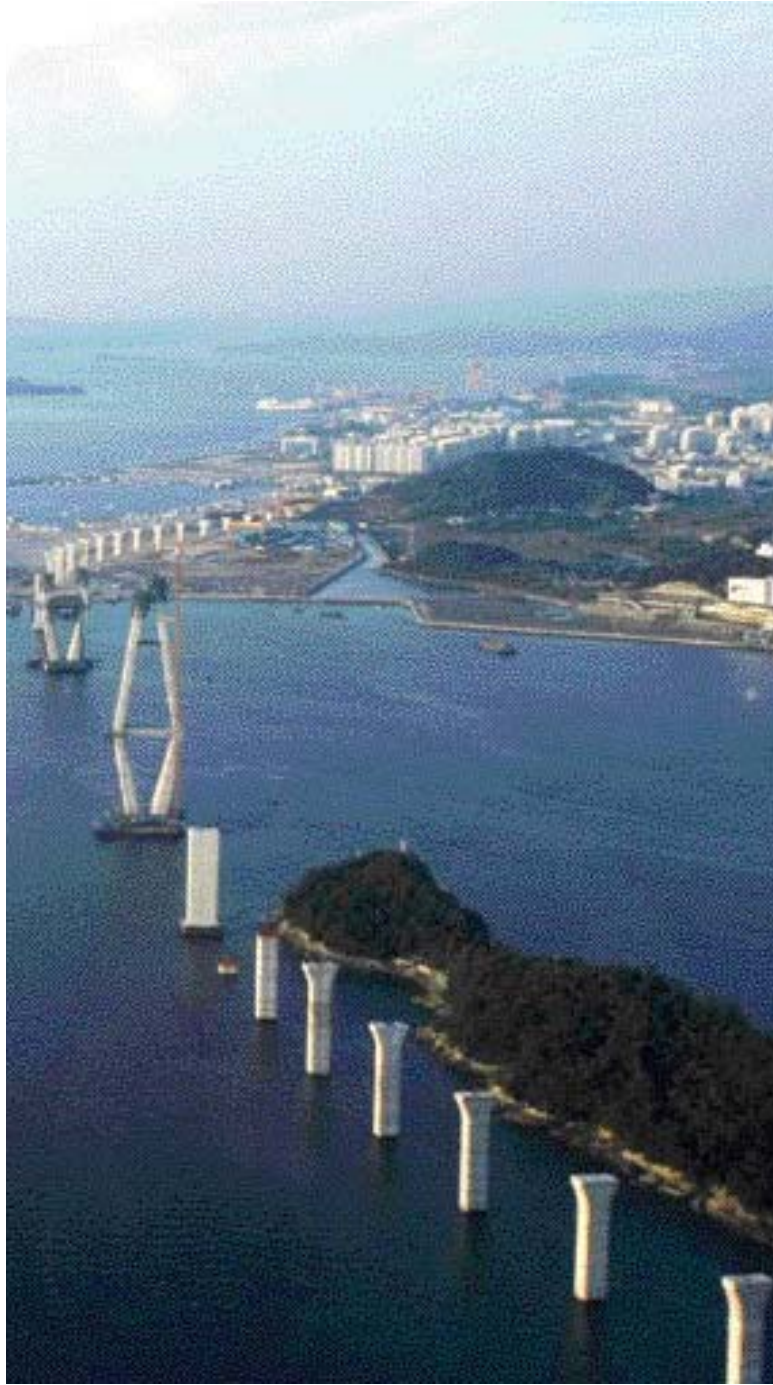
광주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모든 공사계약을 맡도록 했으나 공원녹지

과·교통정책과·도시디자인과 등 3곳은 자체적으로 공사계약을 맺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에 나서면서 지난해 현장 조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평가된 장소에 가로숲 조성 등에 나선 것"이라며 "1천만그루 나무심기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다른 시·도보다 조경사업의 비중이 높아졌고, 늦게 가로수를 심을 경우 좋은 나무를 구하기 어려워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공사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한편 상반기 1억원 공사계약 중 가로등·보안등·조명 관련도 10건에 30억202만원이 투입됐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3건(5억72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등 5건(10억 9162만원), 송학초 주변 교통섬 조성 공사 등 기타는 5건(12억 4056만원) 등으로 분석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위용 드러내는 목포대교 목포 북항과 고하도 신의항을 연결하는 '목포대교'가 교각과 주탑(높이 167.5m) 공사를 모두 마치고 상판이 얹혀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총 연장 4.129km, 폭 35~40m의 왕복 4차선인 이 다리는 총 공사비 3028억원이 투입돼 오는 2012년 4월 준공된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757억 광주은행 놀랐다

“어닝 서프라이즈”...상반기까지 사상최대 순익

광주은행이 올 상반기 어닝 서프라이즈(Earning Surprise·사상 최대실적)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지난 2005년의 1247억원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당기순이익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송기진 광주은행장은 15일 구례 지리산가족호텔에서 열린 '2010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6월 말 잠정 당기순이익이 75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360억원) 보다 2배 이상 신장했다고 밝혔다. 또 올 상반기 순영업이익이 2643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2.5% 신장했다.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지난

1968년 창립 이래 최고다. 기존 최고액은 2008년 716억원이었다. 당기순이익은 일정기간에 벌어들인 수익에서 모든 비용을 공제한 순익을 말한다.

특히 올 상반기 채무자였던 지역 중견건설사의 워크아웃과 기업 회생 신청에 따른 대손충당금(회수불능 추산액)을 영업이익에서 뺐다는 반영한 실적이라 의미를 더했다.

이같은 실적에는 예대마진 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나 외환부문에 주력하는 등 영업전략을 다변화한 결과로 평가된다.

/윤영기자 penfoot@

靑 후보수석에 홍상표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후보수석에 홍상표 YTN 경영담당 상무를 내정했다. 신설된 미래전략기획관에는 유명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1세기 프론티어사업단장, 기획관리실장에는 김두우 청와대 메시지기획관 내정됐다.

총보 보은 출생의 홍 내정자(53)는 휘문고와 외대 정외과를 졸업, YTN 사회1부장, 정치부장, 보도국장, 마케팅국장 등을 거쳤다.

유 내정자(56)는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



과학기술연구원에 근무하고 있으며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경북 구미 출신의 김 내정자(53)는 중앙일보 정치부장과 수석논설위원을 거쳐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냈다.

한편, 최중경 경제수석,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진동섭 교육문화수석, 진영근 고용복지수석 등은 모두 유임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포기 시사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姜시장 “국비 확보후 방식 선정”

강운태 광주시장이 포기 방침을 시사했던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 '선 국비 확보 후 방식 선정'의 원칙을 제시했다.

15일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한 강 시장은 "최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만나 다음주께 중간보고 결과가 나오는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분석이 1.0 이상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편익분석이 1.0 미만으로 나올 경우 60%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이로 인해 향후 광주시가 추진하는 대중교통 체계 개편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강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 방침이 바뀐 것은 없으며, 일단 국비 확보 길은 터놓고 방식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이 2호선이 필요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그러나 지상고가 방식은 ▲도시경관 저해 ▲공사 후 변경 불가 등을 이유로 사실상 사업방식에서 제외시켰다.

이와 관련 강 시장은 "지금까지 전문가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상고가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노면전철이나 지표면을 조

금만 굴착하는 지하 경전철 등을 대안으로 모색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들 대안에 소요될 예산이 현재 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 1조9000억원을 넘어선다면 사업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 없이 전동시장이나 산업단지 등을 노선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신속한 노선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시장은 지난 13일 1박2일 일정으로 서울 출장에 나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김법일 대구시장과 '3D산업 육성 협약서'를 체결했으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찾아 ▲동광주 나들목~광산 나들목 확장 공사 ▲교도소 진입도로 개설 ▲광주전 수질개선 등 6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자율형 사립고 지정
세원학교 최고급 사립학교 지정
한국지리지 출판
2010년 7월 16일
-준비반 자율형 사립고-
보문고등학교
문의: 940-8800

소·신·지·사 박준영 “영산강 방치는 죄악” 천주교 정평위에 답변 서한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운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사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에 전달했다.

박 지사는 답변서에서 "영산강에 운하는 필요 없고 지형적으로 다른 강과 이어질 가능성도 없다. 영산강 질의서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소신을 다시 피력한 것이다.

박 지사는 15일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어떤 근거와 사유로 지지하는가'라는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이상면 정무부지사를 통해 김

제학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에 전달했다.

박 지사는 "영산강 사업은 하구 독 축조 이후 오염이 심해진 수질을 개선하고 부족한 유량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5m 준설은

말했다 4대강에 대한 찬반을 얘기할 수 없다"고 적었다.

박 지사는 이어 "영산강 살리기는 영산강 유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런 숙원을 해결하고자 지난 2004년 민주당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해왔다"면서 "지난 2006년에도 같은 공약을 했지만(이때는 '영산강 뱃길복원') 어느 개인이나 단체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면으로 계속
/김지을기자 dok2000@

수분의 보습과
대사작용
촉촉함에 탄력까지
얻어냈다

Subhasoon